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아세아텍(050860)

기계·장비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평가데이터(주)

작성자

신지혜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215-239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아세아텍(050860)

21세기 선진영농의 대표주자

기업정보(2022/03/15 기준)

대표자	김신길
설립일자	1978년 9월 9일
상장일자	2010년 1월 26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주요제품	다목적 관리기, 승용 관리기, 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 축산작업기, 이앙기, 농업용드론 외

시세정보(2022/03/15 기준)

현재가(원)	2,88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649
발행주식수(주)	22,500,000
52주 최고가(원)	3,900
52주 최저가(원)	2,558
외국인지분율	3.63%
주요주주	김신길 25.53% 외

■ 종합 농업용 기계 전문 제조 기업

(주)아세아텍은 1978년 9월 설립, 2010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농업용 기계(관리기, 이앙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결속기, 트랙터, 콤바인 외) 전문 기업이다. 또한, 식량 자급 및 농업현대화를 위해 우수한 품질의 농업기계를 생산하며 성장해온 기업으로, 농업기계 최초로 KS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주력기종인 다목적 관리기는 전 세계 생산 및 판매 1위의 World Best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 승용관리기용 선바이저 특허권 취득

(주)아세아텍은 2021년 9월 승용관리기용 선바이저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취득한 특허에 따르면 승용관리기의 운전석 후방에 설치하여 사용 시에는 펼쳐서 햇빛의 조사를 차단하면서 빗물이나 이물질이 작업자에 직접적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특허 기술을 승용관리기에 적용하여 작업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농기계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NH농협캐피탈 MOU 체결

2021년 12월, (주)아세아텍과 NH농협캐피탈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구입액의 최대 100%까지 대출해주는 금융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농기계 보급 확대와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주)아세아텍의 전국 150개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농기계를 구입할 때 농가 신용에 맞추어 농기계 구입 가격의 최대 100%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일반적으로 농기계 구입가격의 평균 50~60% 수준에서 일정 금액을 자부담해야 하는 농기계 융자상품보다 한도가 높아, 농기계 구입을 고려하는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향후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9.06	1,028	2.10	25	2.41	5	0.48	0.50	0.43	23.57	22	4,624	152.28	0.73
2020.06	1,130	9.91	52	4.57	10	0.87	1.00	0.76	38.00	44	4,634	51.39	0.48
2021.06	1,065	-5.67	59	5.57	48	4.48	4.74	3.65	21.96	212	4,822	16.13	0.71

기업경쟁력

첨단 농업기계 기술개발 역량 보유

- 전문적인 연구개발 조직 및 다수의 지식재산권 보유
- 발농업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구현 중

브랜드 경쟁력 기반 판매 네트워크

- 차별화 된 제품 포트폴리오와 높은 브랜드 가치 보유
- 전국 대리점 판촉 활동을 통한 적극적 판매 전략 실행

핵심기술 및 주요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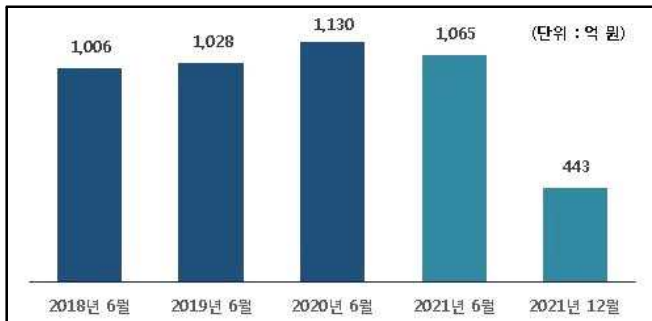
핵심기술

- 용도별 다양한 관리기 제품 개발
- 한국형 지형 맞춤형 설계
- 제품 다양화 및 스마트 기술 접목

주요제품

- 관리기
- MF 트랙터
- 콤바인
- 스피드 스프레이어
- 축산 작업기
- 이앙기

매출실적



시장현황

세계 농기계 시장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대규모 시장
-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 : 2018년 1,025억 달러 → 2025년(E) 1,352억 달러, 연평균 4% 증가
- 식량수요,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정책, 신기술 적용, 정밀농업 등 기술발달로 농기계 수요 지속적 증가 중

최근 변동사항

승용관리기용 선바이저 특허권 취득

- 특허권 취득 일자 : 2021년 9월(10-2300716)
- 승용관리기의 운전석 후방에 설치
- 작업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제공

NH농협캐피탈과 MOU 체결

- 2021년 12월, 농기계 구입액의 최대 100%까지 대출 해주는 금융 업무 제휴 협약 체결
- 목적 : 친환경 농기계 보급 확대 및 구매 부담 감소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SG	Issue	Action
 ENVIRONMENTAL	-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제품 및 공정 개선 - 자원이용, 안전보건 등 환경 이슈 가능성은 타 업종에 비해 낮은 편 - ESG 경영 세계적 이슈	- 탄소중립 위한 전기 농기계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선 기업 -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동력원 시스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동력원 고효율 변속 시스템 등 개발 - ESG 동향조사, 도입시기, 조직구성 등 검토 필요
 SOCIAL	- 제품 특성상 높은 신뢰성과 품질안정성 요구 - 조직문화,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 거래처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 - 기술보호, 유출 및 정보보안	- ISO 9001(품질경영), KCS(자율안전), KS(한국산업표준), NET 인증 기반 산업 및 품질 안전 시스템 보유 - 일과 삶의 균형 도모(여름정기휴가 및 휴가비 지원 등) - 지역경제 활성화 : 매해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참여
 GOVERNANCE	- 준법경영, 부패방지 및 내부고발 - 정보관리 및 정보보호 -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성 확보 -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투명한 제도	- 소통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지속 업데이트 -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활동 적극적인 공개 - 연구 자율성 보장과 꾸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직체계 확립으로 산업 성장과 혁신에 기여

한국평가데이터(주)의 ESG 평가항목 기반 자체 데이터, 언론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통해 Issue와 Action을 구성하고 이를 SDGs와 연계

I. 기업현황

국내 농업기계 산업을 선도해온 그린경영 기업

(주)아세아텍은 종합형 농업기계 전문메이커로서 식량자급 및 농업현대화를 위해 우수한 품질의 농업기계를 생산하며 성장해온 기업으로, 국내 농업기계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 회사 연혁 및 주요 사업 분야

(주)아세아텍(이하 ‘동사’)은 농기계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8년 9월 아세아종합기계(주)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 3월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2010년 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반기보고서(2021년 12월) 기준, 26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동사는 종합형 농업기계 전문메이커로서 식량자급 및 농업현대화를 위해 우수한 품질의 농업기계를 생산하며 성장해온 기업으로, 그 동안 꾸준한 연구개발 및 기술축적으로 한국의 21세기 과학영농을 주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주력기종인 다목적관리기는 전 세계 생산 및 판매 World Best 제품으로 인정받았으며, 결속기는 유럽 8개국에 수출하여 우수품질제품 인증마크(EM)를 획득한 바 있다. 또한, 과수원용 약품살포기기 SS기는 우수한 기능과 품질로 인해 Good Design분야에서 한국 밀레니엄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를 대표하는 영농기계 제작 업체로 자리하고 있다.

[그림 1] 동사 전경



*출처 : 동사 홈페이지

■ 대표이사 정보 및 주요 주주 현황

대표이사 김신길(1948년생, 남)은 2001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농업기계학과를 졸업(박사)하였고, 농기계 산업 분야에서 약 40여 년간 종사하면서 첨단 농기계 개발과 보급 및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으로 겸직 중에 있으며, 2006년 2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동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동사 대표이사는 시장 및 수요분석을 진행하고 실현가능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반기보고서(2021년 12월) 기준 최대 주주는 25.53%의 지분을 보유한 김신길 대표이사이며, 대표이사 포함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하면 약 35.10% 수준이다.

[표 1]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성명	대표이사와의 관계	주식(주)	지분율(%)
김신길	본인	5,743,802	25.53
이정자	형수	237,553	1.06
김인수	조카	70,578	0.31
김현수	조카	1,035,258	4.60
김진수	조카	610,527	2.71
황순연	형수	199,744	0.89
계		7,897,462	35.10

*출처 : 동사 반기보고서(2021년 12월),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 주요 제품 및 사업 유형별 매출 현황

[그림 2] 동사의 주요 제품



*출처 : 동사 홈페이지

[표 2] 사업 유형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매출유형	품목	2019.06	2020.06	2021.06	2021.12
제품	관리기, SS기 등	93,816	104,385	96,599	41,828
상품	동력운반차 외	3,140	2,637	2,717	885
부품	엔진 외	5,810	5,929	7,225	1,604
합계		102,766	112,951	106,541	44,317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1년 12월),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II. 재무분석

세계 생산 및 판매 1위, 다목적관리기

현재 중국 농기계 산업이 단순 조립 형태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중국으로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유럽, 동남아 지역의 수출 호조세와 정부의 정책지원 확대 등이 기대된다.

■ 수출 호조세와 정부의 정책지원 확대 등 매출 신장 기대

동사는 종합형 농업기계 전문메이커로서 식량자급 및 농업현대화를 위해 우수한 품질의 농업기계를 생산하며 성장해 온 기업이다. 오랫동안 소형농기계사업에 진출하여 동사의 주력 제품은 관리기, SS기, 절속기,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다목적관리기는 전 세계 생산 및 판매 1위의 World Best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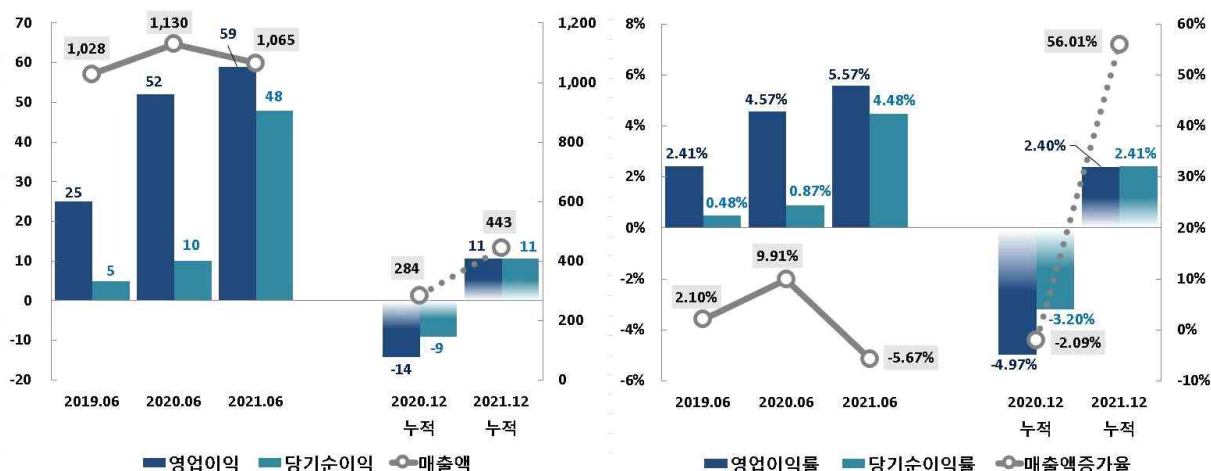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7월~2019년 6월(전전기) 1,028억 원, 2019년 7월~2020년 6월(전기) 1,130억 원을 기록한 이후 관리기, SS기 등의 유럽 및 중국향 수출 호조에도 국내 대리점과 농협중앙회의 판매 부진 등으로 2020년 7월~2021년 6월(당기) 1,065억 원을 시현하여 전년 대비 5.67%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순이익)은 원가구조 개선으로 전전기 25억 원(5억 원), 전기 52억 원(10억 원), 당기 59억 원(48억 원)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익상황을 살펴보자면, 2021년 12월 말 누적 매출액은 443억 원(전년 동기 대비 56.01% 증가)을 시현하였으며, 영업이익(순이익)은 11억 원(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억 원(20억 원) 증가하였다.

현재 중국 농기계 산업이 단순 조립 형태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중국으로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유럽, 동남아 지역의 수출 호조세와 정부의 정책지원 확대 등이 기대되나, 국내 농가소득 축소 등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K-IFRS 별도기준]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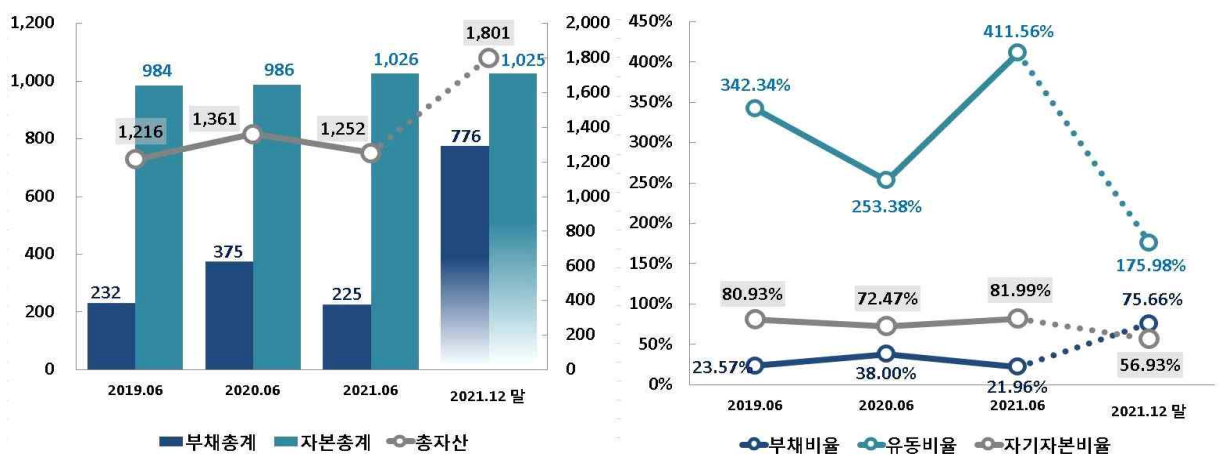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1년 12월),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 무난한 재무구조 견지

동사의 총자산은 2020년 6월 말 1,361억 원에서 2021년 6월 말 1,252억 원으로 8.05% 감소하였고, 2021년 12월 말 1,80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부채비율은 2019년 6월 말 23.57%, 2020년 6월 말 38.00%, 2021년 6월 말 21.96%이고, 유동비율은 2019년 6월 말 342.34%, 2020년 6월 말 253.38%, 2021년 6월 말 411.56%이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75.66%, 유동비율은 175.98%로, 동사의 재무구조는 비교적 무난한 편이나 유동비율을 중심으로 본 단기재무안정성은 다소 미흡한 상태이다.

[그림 4]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K-IFRS 별도기준]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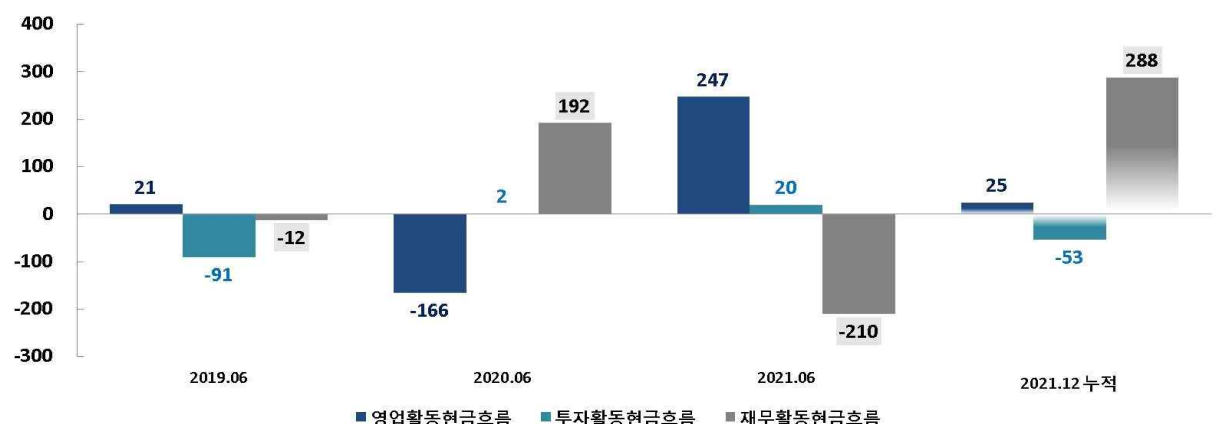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1년 12월),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동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매출채권의 감소 등으로 인해 2020년 6월 부(-)에서 2021년 6월 정(+)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등으로 2020년 6월, 2021년 6월 연속 정(+)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단기차입금의 상환 등으로 2020년 6월 정(+)에서 2021년 6월 부(-)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2021년 12월 누적 현금흐름을 볼 때, 동사는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있고, 신사업 투자를 위해 추가 차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기말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기초 대비 261억 원 증가한 384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5] 현금흐름 분석 [K-IFRS 별도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1년 12월),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첨단 농업기계 개발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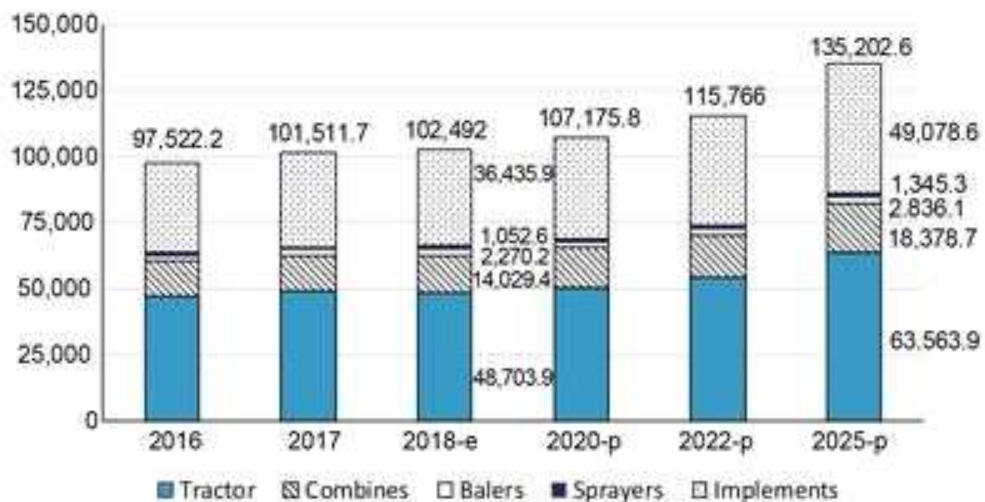
동사는 스마트 농업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사업 보완적 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 농기계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 전 세계 농기계 시장 꾸준히 증가

농기계 시장은 인구와 식량수요 증가, 경작지와 농업인력 부족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는 대규모 시장이다. 농축산기계신문의 「글로벌 농기계산업 동향분석(2021년)」에 따르면, 2018년 1,025억 달러에서 연평균 4% 성장하여 2025년 1,3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수요,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정책, 신기술 적용, 정밀농업 등 기술발달로 농기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기계 종류별로는 트랙터(Tractor)가 487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구류가 364억 달러, 콤바인이 140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그림 6] 글로벌 농기계 시장 규모(2016~2025년)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농축산기계신문, 글로벌 농기계산업 동향분석(2021년)

인구증가와 넓은 경작지, 식량 수요가 큰 아시아·오세아니아가 가장 큰 시장이며, 중국은 트랙터 기준으로 23.2%를 점유하는 세계 1위 시장이다. 반면, 내수시장은 2000년 2조 원 돌파 이후 정체상태이며, 주요 품목인 트랙터 등 외국산 농기계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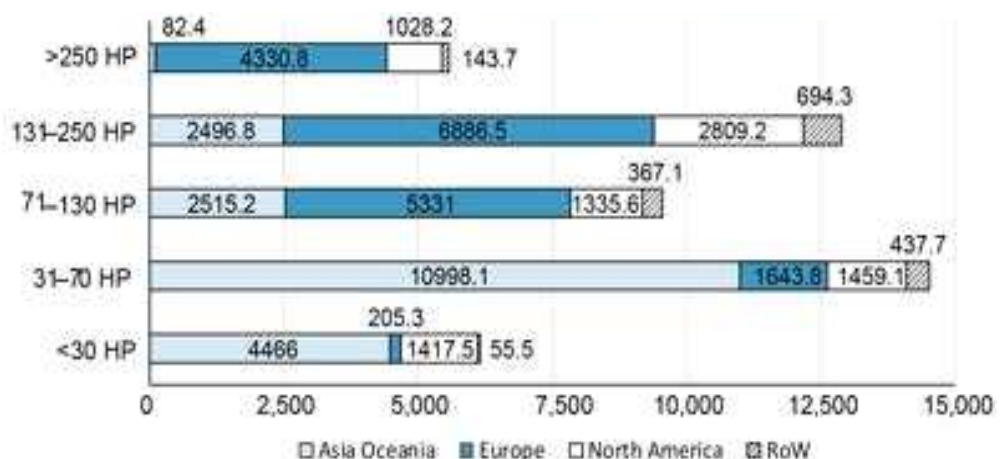
■ 2022년 대형 트랙터 시장 확대

가장 시장이 큰 트랙터는 130마력 이상의 고출력 기종을 중심으로 성장해 2018년 487억 달러에서 2025년 63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기준 31~70마력 트랙터는 145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131~250마력 제품은 129억 달러를 기록했다. 소형 트랙터보다는 중대형 위주로 시장이 성장해 2022년부터 30마력 이하 트랙터보다 250마력 초과 대형 트랙터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은 2018년 206

억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큰 시장으로 대두했고, 유럽이 184억 달러, 북미가 80억 달러 순이었다. 이 중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은 70마력 이하 소형 트랙터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럽은 70마력을 초과하는 중대형 트랙터 중심으로 나타났다. 북미는 131~250마력대의 대형 트랙터가 가장 많이 팔렸으며, 소형에서 대형까지 비교적 골고루 시장이 형성되었다. 현재 무인자율트랙터는 일부 전시회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2022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을 형성해 2030년 5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지역별/출력별 트랙터 시장(2018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농축산기계신문, 글로벌 농기계산업 동향분석(2021년)

■ 국내 기술 미국대비 80.5%, 기술격차 3.5년

전 세계 농기계 시장은 글로벌 선도 기업이 과점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국내 기업의 매출 및 종업원 수는 영세한 수준이 많다. 현재 글로벌 선도 기업은 M&A, 전략적 제휴, 영업망 확충 등 적극적인 확장전략과 ICT 기술,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정밀농업, 농장운영 효율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농업기술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 농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전사매출 합계는 세계 1위 존디어의 농기계 사업부 매출(2017년 200억 달러)의 1/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림 8] 농업기계·시스템 기술수준 및 격차

(단위 : 년, %)



*출처 : 농축산기계신문, 글로벌 농기계산업 동향분석(2021년)

농기계는 다양한 ICT 기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정밀농업을 구현하고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선도 기업은 GPS 시스템, 텔레매틱스 기술 등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날씨, 토양상태, 작물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적의 작업계획을 지원하고 상황에 맞게 물, 비료, 약제의 투입량과 작업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또한, 자동변속기, 자율주행 및 주행보조시스템, 스마트폰 기반 애플리케이션, 농기계 진단제어 등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술 수준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며, 독일, 일본, 네덜란드가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 80.5% 수준으로 기술격차가 3.5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보다 나은 수준이나 그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 농기계 산업 최근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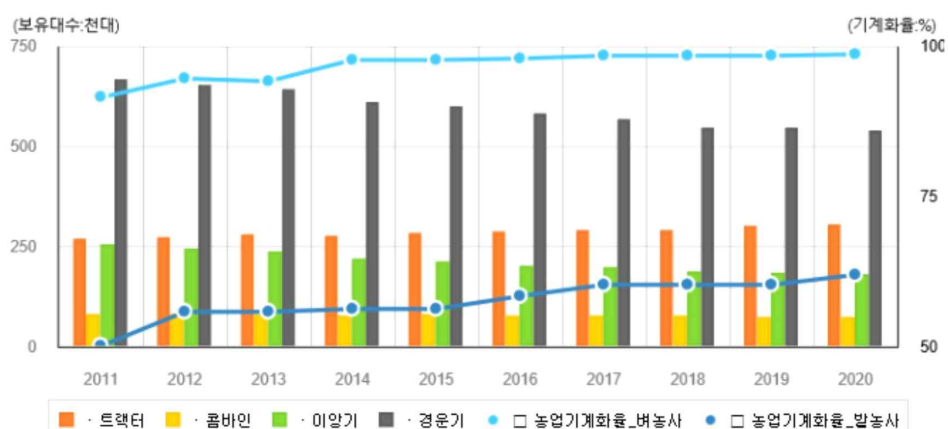
많은 나라에서 국가별 관련 정책수립을 통해 농기계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10년간의 장기 기본계획과 로봇전략을 통해 농업기계화 지원을, 중국은 5개년 발전계획과 중국 제조 2025로 농기계 발전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5년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무인이동체 발전계획에서 농기계분야 발전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발농업 기계화를 75%를 목표로 발농업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추진한 제7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이어진 한·중 FTA 대책 등을 통해 발농업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발농업 기계화율이 61.9%로 이는 98.6%인 논농업에 비해 낮고 정부의 목표인 70%에도 미달한 상황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25년 80% 기계화를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주요 10작물에 대한 전과정기계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작업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를 현장에 보급 확산하기 위해 영농규모별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농작업을 대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능개선과 새로 개발한 농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하고, 정부가 지원해 주산지 작목반 등 규모화 된 공동 경영체에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 임대자와 임대사업소는 주변 영세·고령·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을 추진해 발농업 기계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그림 9] 농업기계화 현황

(단위 : 천 대,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보유현황(2021년)

■ 승용관리기용 선바이저 특허권 취득

동사는 2021년 9월 승용관리기용 선바이저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취득한 특허에 따르면 승용관리기의 운전석 후방에 설치하여 사용 시에는 펼쳐서 햇빛의 조사를 차단하면서 빗물이나 이물질이 작업자에 직접적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승용관리기에 적용하여 작업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표 3] 특허권 취득 사항

구분	내용
특허 명칭	승용관리기용 선바이저
특허 번호	10-2300716
특허 주요 내용	승용관리기의 운전석 후방에 설치하여 사용 시에는 펼쳐서 햇빛의 조사를 차단하면서 빗물이나 이물질이 작업자에 직접적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비 작업 시에는 접어서 부피를 줄여 간섭현상을 배제하여 승용관리기의 품질을 높이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주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주지 관용의 승용관리기의 운전석 후방 프레임에 장착되는 프레임파트와 프레임파트에 결합되어 운전석에 착석한 작업자로 조사되는 햇빛과 이물질 및 빗물을 차단하는 바이저 파트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 취득 일자	2021년 9월 6일
특허 활용 계획	승용관리기에 장착 적용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작업 시 편의성, 안전성을 사용자에게 제공
대표도	적용예정인 승용관리기용 선바이저

*출처 : 특허청, 전자공시시스템,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 농기계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NH농협캐피탈 MOU 체결

2021년 12월, 동사와 NH농협캐피탈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구입액의 최대 100%까지 대출해주는 금융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저감 장치를 장착한 친환경 농기계 보급 확대와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동사의 전국 150개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관리기와 스피드스프레이어, 트랙터, 콤바인, 축산작업기, 농업용 드론 등을 구입할 때 농가 신용에 맞추어 농기계 구입가격의 최대 100%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자는 최저 4.0%, 상환 기간은 12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고, 이자는 매월 납입, 원금은 연 1~4회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일반적으로 농기계 구입가격의 평균 50~60% 수준에서 일정 금액을 자부담해야 하는 농기계 융자상품보다 한도가 높아, 농기계 구입을 고려하는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향후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주요 연구개발 현황

동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공인된 아세아농업기계 기술연구소(최초인정일 : 1990년 11월)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전담인력들이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07%로 산업 평균 2.31%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나, 핵심기술과 관련된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사업 보완적 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연구개발투자비용

(단위 : 억 원)

과목	2019년 6월	2020년 6월	2021년 6월	2021년 12월
연구개발비용 계	11	14	10	12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 당기매출액 × 100]	1.04%	1.23%	0.93%	2.70%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1년 12월),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표 5] 국내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2022년 3월 등록 기준)

(단위 : 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총계
50	2	20	50	122

*출처 : 특허청,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 동사의 ESG 활동

ENVIRONMENTAL

동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 농기계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서, 세계 농기계 산업의 기술 흐름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 편의성 및 안전성 확대, 기계의 성능 및 효율성 증대, 환경 친화성 강화, 현지 적응형 모델, 부품 경량화, 원가절감, 연비절감 등을 목표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동력원 시스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동력원 고효율 변속 시스템, 복합

제어 기반 무단변속 농업용 기계, 복합제어 작업기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OCIAL

동사는 기본적으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KCS(자율안전확인신고), KS(한국산업표준), NET(모듈화 방식의 킷치 시스템, 지지대 자동안착 기술 적용으로 1인이 관리기에 다양한 작업기를 손쉽게 부착하여 사용) 인증 기반 산업안전 및 품질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을 위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워라벨을 고려하여 정기 건강검진 실시, 여름정기휴가 및 휴가비 지원, 각종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원, 통근버스/사내 식당 운영,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의 공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책임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매해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에 참여하여 수리기사 및 차량을 지원하고,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많이 사용되는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점검 및 정비해주고 있다.

[그림 10] 농기계 수리 봉사활동



*출처 : 경기IN, NEW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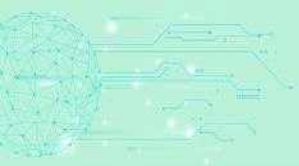
GOVERNANCE

지배구조(G)의 경우, 이사회는 반기보고서(2021년 12월) 기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사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다. 이사 선임에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향후 투자계획 및 재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와 주주 권익 보호 측면에서 ESG 관련 정보공개는 부족한 수준이나, 상장회사로서의 공시 의무, 소통 채널 다양성 확보, 정보 접근을 준수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최신 소개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최근 1년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